의료불사 원력으로 완성한 대의왕 도량

울산 정토마을 간월사 적멸보궁 낙성법회 봉행

의료 · 교육 원력…20년 만의 경사
정염회 등 단체·불자에 공로패 수여
스리랑카 대통령 기증 진신사리 봉안
지상 3층 규모…1천여 명 동참해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간월사가 9월 16일 적멸보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올해 4월 불교계 최초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탄생한 울산 정토마을 자재병원 간월사(주지 능행)가 적멸보궁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9월 16일 정토마을 공경전 야외법단에서 봉행된 이날 낙성법회는 타종과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1부 낙성대법회와 2부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 낙성대법회는 삼귀의례, 반야심경, 경과보고, 티베트불상 전달식, 감사패 및 공로패전달, 봉행사,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청법가, 법어, 사홍서원, 테이프 커팅식의 순으로 이어졌고, 동산 앞마당에서 2부 축하공연이 열렸다.

법회에서는 티베트 탕카와 불상 전달식도 진행됐다. 인도 다람살라에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직접 보낸 탕카와 불상은 소눈드다라 스님과 소남 스님이 대신해 능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능행 스님은 또 낙성법회가 여법하게 회향하는데 기여한 정염회(대표 최세진) 등 신행단체와 불자,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낙성대법회에서 능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2003년 의료와 교육을 통한 포교 방편의 원력을 세운 지 20년 만에 낙성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정토마을은 하화중생하고 상구보리하며 불교의 정법에 올바른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축사에서 "능행 스님이 지난 30년 동안 신심과 열정으로 오늘의 간월사를 일구어 왔다"며 "통도사 사부대중은 간월사가 부처님의 가피로운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도 "아픈 사람을 보듬는 이 정토마을 간월사는 앞으로 더욱 자비도량이 될 것"라며 "능행 스님은 대한민국과 세계 불교에 자비로서 좌표를 남기신 그런 날이다. 능행 스님의 모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부처님께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청도 대감사 회주 설우 스님은 법문에서 "자재병원 개원식에도 참석했지만 능행 스님은 인도의 테레사 수녀나 대만의 정공 스님과 같은 자랑스러운 수행자의 표본으로 관음보살의 화신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과 고독함과 눈물을 흘리는 그 심정을 참으로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자재병원과 더불어 부처의 삶 살아가는 선불도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축하공연에서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가수 박서진, 고정우, 윤준협과 풍류대장에 출연한 가수 이아진이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신나는 노래로 사부대중과 함께 간월사 적멸보궁 낙성을 축하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정토마을 간월사 주지 능행 스님을 비롯해 대감사 설우 · 영축총림 통도사 교구장 현덕 ·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 부회장 성본 · 운문사 율주 일진 · 북대암 회주 법춘 · 학림사 회주 수환 스님이 참석했다. 또 스리랑카 소눈드다라 · 남인도 소남 · 내원사 주지 지도 · 오봉사 주지 혜원 · 법왕사 혜경 · 울산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종선 스님과 서범수 국회의원, 김영철 울주군의회의장, 건축가 김개천 국민대 교수 등 1000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정토마을 간월사는 지상 3층으로 구성됐다. 1층 공경전은 아미타불 주불을 모시고 신중단 및 영단, 보은전이 있고, 2층은 티베트 삼존불, 모래 만다라, 삼천불전, 만년위패를 모셨다. 3층 적멸보궁은 스리랑카 7대 대통령이 기증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

스님들의 산중장터 '승시' 올해도 만나 보세요

10월 7~9일 동화사 일원서 개최
승가 씨름대회 등 행사들 '다채'

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능종)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경내에서 '제13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를 개최한다.

승시(僧市)는 스님들의 산중장터를 재현한 축제의 장이다. 스님과 사찰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교환하는 단순한 시장의 의미를 넘어 불교문화와 전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 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10월 7일에는 불교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제13회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 개막식이 진행된다. 본 개막식에는 가수 숙행, 신유, 장미화, 김흥국이 출연해 흥을 돋운다.

8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대구지역문화예술인 공연과 비보이, 마술 공연이 준비돼 있다. 특히 이날은 승시 축제의 꽃으로 유명한 천하장사 시념인(씨름) 대회가 열린다.

행사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퓨전국악 공연에 이어 국악과 클래식 한마당이 마련된다. 국악인 오정해와 금관5중주 앙상블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씨름선수 박광덕이 직접 참여하는 '박광덕을 이겨라' 이벤트도 주목된다.

축제 기간 중 각 부스에서는 다양한 불교문화를 상시로 체험할 수 있으며, 사찰음식을 직접 배우고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행사 관계자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불교문화가 좀 더 국민과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범능 스님 추모 음악회…콘서트로 '변화'

쌍봉사, (사)불지불교문화원
9월 16일 추모음악회 개최
소아백혈병 치료비도 전달

노래하는 수행자이자, 출가 전 민중가수로 활동하였던 범능 스님(1961~2013)을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전남 화순 쌍봉사(주지 증현)는 (사)불지불교문화원과 함께 9월 16일 화순 하니움 적벽실에서 '범능 정세현 10회, 음악에 물들이다' 추모 음악회를 개최했다.

범능 스님은 생전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화순에서 음악회를 진행해왔다. 열반 후에도 이어져 오던 산사음악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았고, 일반인과 불자들을 위한 콘서트 자리로 마련됐다.

음악회에는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증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 화순불교사암연합회장 진철 스님을 비롯해 여러 대중스님과 김대원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 강종철 화순군 부군수, 문기연 불지불교문화원장, 신도 등이 참여했다.

증현 스님은 "명상 음악가이자 민중음악가인 범능 스님의 음악과 뜻을 계승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도 참여하는 콘서트 형식의 음악회를 변화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행복하고 힐링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신 화순군민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범능 스님은 기타를 메고 장엄한 모습으로 노래하는 모습이 선하다"고 회상하며 "범능 스님이 불렀던 찬불가는 앞으로도 세세생생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신심을 북돋우는 천재성이 있는 음악이다.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음악회를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범능 스님을 추모하는 음악회는 국악가수 권미희, 낭송가 강춘희, 문기연, 통기타 혼성듀오 주니와후니, 울림창작예술원, 연합합창단(만연사, 빛고을포교원, 보은사)에 이어 가수 김원중, 트롯신배아현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불지불교문화원은 이날 소아암 백혈병 치료기금 300만원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칠불사 중창주 통광대선사 10주기 다례재

9월 16일 칠불사 보설루서 봉행
일대기 담긴 책 등 제작해 배포

하동 칠불사(주지 도응)가 9월 16일 경내 보설루에서 칠불사 중창주 제월당 통광대선사 원적 10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통광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불교의 꽃을 새롭게 피어서 세계 만방에 떨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제월문도 대표 노웅 스님은 "은사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수행과 포교, 불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문도들이 화합하고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은 "은사스님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대기를 구술하신 책 〈마음아, 어디 있느냐〉와 스님의 평생 법문을 모은 USB를 제작했다"며 "은사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대로 선원장 스님을 비롯한 문중스님들과 화합하고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월당 통광 스님은 범어사에서 덕진(德眞) 여환(如幻)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명허(明虛)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불교계 추석 맞아 자비물품 전달

신광사 · 원효사, 북구청 통해
생활용품 등 어려운 가정 지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의 물품이 전달됐다.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는 9월 21일 광주 북구청(청장 문인)을 방문해 다문화가정에 추석 선물세트(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쌀 20kg, 오리, 닭, 소세지, 한돈 모듬세트, 과일, 창평한과, LG생활용품 등이 포함되어 총 8가구를 지원한다.

전달식에서 동현 스님은 "어려운 환경과 낯선 땅에 이주해온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해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살렸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달한 선물세트에는 자비신행회, 반가종합건설 안정주 대표, 남도식품 이계수 대표 등도 후원에 함께했다.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도 이날 북구청을 방문해 지역 차상위계층을 위한 쌀 1000kg(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사)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도성)의 지정기부를 통해 전달한 자비의 쌀은 사찰에서 십시일반 모연해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호신뢰와 이해로 불교 발전 이끌겠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
9월 16일, 이취임식 법회 봉행



통영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종묵 스님과 신임회장 묵원 스님의 이취임 법회가 9월 16일 통영금호리조트 충무홀에서 봉행됐다.

이날 이취임 법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향, 삼귀의, 한글 반야심경 봉독, 묵념, 고불문 낭독, 공로패 전달, 이임사, 취임사, 축사, 내빈소개, 공지사항,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묵원 스님은 8년 동안 통영사암연합회를 이끌어온 직전회장 종묵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회장 종묵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회장 임기 동안 많은 도움을 준 각 사암스님들과 불자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며 "신임 회장스님께서 사암연합회를 잘 이끌어 주실거라 믿는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롭게 통영불교사암연합회를 이끌게 될 묵원 스님은 "지역사찰 스님들과 신행단체와의 상호신뢰와 이해로 지역불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아 연합회를 이끌어 가겠다"며 "연합회 임원진 스님들과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통영불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신규포교사 고불식

신규포교사 41명 정식 활동 시작



조계종 포교사단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이 제28기 신규임용 포교사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9월 16일 하동 쌍계사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봉행된 이날 고불법회는 지도법사 덕룡 스님과 박해덕 단장, 안정임 부단장 28기 포교사 41명이 참석했다.

9월 9일 육군 논산 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포교사 품수식을 갖고 정식 포교사로서 첫발은 내딛는 신규임용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고 종단을 외호하며, 신행포교 및 전법포교 활동에 나설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박해덕 단장은 "초발심을 잊지 않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면의 실력을 쌓는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규임용된 28기 포교사들은 지도법사 덕룡 스님으로부터 포교사증과 뱃지를 전달받고 정식 포교사로의 활동을 시작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은해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재 봉행

9월 17일 경내 육화원서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는 9월 17일 경내 육화원에서 '은해사 합동 추모 다례재' 를 봉행했다.

은해사는 2021년부터 은해사의 수행가풍과 위상을 진작하는 데 공헌한 선지식들의 사상과 삶을 기리기 위해 법전 대종사를 비롯해 동곡당 일타 · 화산당 학명 · 일고당 덕근 · 포월당 혜업 · 포운당 성진 · 포산당 혜인 스님의 합동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를 비롯해 회주 돈명 스님, 주지 덕조 스님 등 문중스님들이 참석했다.

조실 법타 대종사는 "문중 스승들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더 열심히 수행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여수시공무원들, 향일암서 특별 템플스테이

10여 명 참석해 명상 체험 등



여수 향일암(주지 연규)이 9월 16일 여수시청공무원불자회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템플스테이에는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남해바다를 바라보는 명상과 예불, 사찰음식 등을 체험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향일암은 방안에서 일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찰이다"라고 소개했다.

여수시청공무원불자회(회장 이수남)는 주지스님과의 차담을 통해 개개인의 고충을 상담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 노인복지관, 추석맞이 자장면 나눔

나누면봉사단, 3년째 봉사활동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추석맞이 자장면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9월 18일 나누면봉사단(단장 황선호)과 함께한 자장면 나눔행사에서는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300명에게 손수 만든 자장면을 대접했다.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나누면봉사단의 자장면 나눔행사는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장 대원 스님은 "항상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주신 봉사단장 및 단원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복지를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